

담양 송학민속체험박물관

추억과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

전라도 맛 기행

강진 가우도 횡집 '낙지 매생이탕'



매생이 감칠맛에 탕탕한 빨낙짓살

매생이 찰이다. 매생이는 강진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강진읍내 식당치고 매생이 요리를 취급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매생이가 철분과 칼륨, 무기염류와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웰빙식으로 자리잡으면서 도시에서도 매생이를 주메뉴로 취급하는 음식점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진미를 추구하는 식객들은 본토맛을 제일로 친다.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중저마을에 있는 가우도 횡집은 식객들 사이에서 '발품을 팔아 가볼만한 곳'으로 꼽힌다.

이 집의 '낙지 매생이탕'은 특유의 감칠맛에다 영양가를 한층 높인 새로운 조리법 때문에 인기가 높다. 감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매생이를 젓가락으로 휘감아 혀에 올려놓자마자 강진만 바닷내음이 입안에 가득찬다.

매생이의 '질대미감'을 느끼면서 탕탕한 낙짓살을 씹는 맛은 비할 데가 없다. 낙지는 씹는 맛이 덜한 매생이를 먹는 단조로움을 피하게 해주는 영양식이다.

매생이탕에 굴을 넣어 굴맛을 개운하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가우도 횡집은 빨낙지를 넣어 씹는 맛을 추가하고 영양가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맛의 비결은 낙지와 굴을 참기름에 먼저 볶고 난 뒤 매생이와 함께 끓여내는 것이라고 한다. 주인 곽창옥(64)씨는 "낙지 매생이탕은 먹어본 손님들이 반드시 다시 찾는 메뉴 가운데 하나다"며 "맛과 영양을 동시에 추구한 요리법이 주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가우도 횡집은 민박을 위해 바닷가에 만들어진 집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주변 풍경이 압권이다. 가우도와 강진만의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집 2층에서 식사할 것을 권한다. 보통 매생이탕은 1만원, 낙지 매생이탕은 1만2천원. 문의 061-433-7114.

/윤영기자 penfoot@

맛 : ★★★★★  
분위기 : ★★★★★  
가격인종 : ★★★★★  
(★ 5개 만점)



사설박물관으로는 국내 최대인 송학민속체험박물관은 생활사 전시관, 농기구 전시관, 전통농가 체험장과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절기상으로 입춘이 지났다지만 이젠 해도 너무 한다. 눈은 고사하고 수은주가 아예 영상권에서 희희낙락이다.

겨울이 실종된 것일까? 아이들의 궁금정은 따뜻한 날씨와 더불어 밖으로 마실 나가길 원한다. 다음주에는 설날이다. 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실종된 겨울을 찾으러 떠나거나 아예 때를 맞추지 못한 봄기운을 맞으러 나가보자.

담양은 가깝기도 하고, 아기가자기한 볼 거리가 많다. 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많아 나들이로는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메타세쿼이아길을 따라 가다 담양리조트를 지나 5분여를 달리면 송학민속체험박물관에 도착한다. 이쯤도 참 생소하다. 처음 들어가는 주차장과 입구에선 실망스러움을 감추기 어렵다. 하지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면 박물관의 매력에 점점 빠져든다.

송학민속체험박물관은 박물관 답지 않다. 개 매력이다. 만져 볼 수 있는 박물관 아기가자기한 박물관. 백년전에서 수천년전 까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지난 2005년 개장한 송학민속체험박물관은 사설박물관으로는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유물·민속·희귀품 1만여 점 갖춰 만져보고 학창시절 직접 체험까지

2만5천여평 규모의 송학 민속체험랜드 부지에 전시관과 한식집, 찻집, 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관에는 구·신석기 시대 유물을 비롯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유물과 우리 고유의 민속품, 희귀품 1만여점을 만날 수 있다. 또 우리 민족의 전통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생활사 전시관, 농기구 전시관, 전통농가 체험장, 한옥·초가 체험장,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1층 전시실에 들어서면 세계에서 가장 큰 반닫이가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동선을 따라 움직이면 찻상, 목침, 팔찌, 활통, 팽이, 기와 등 선조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전시물들이 자리잡고 있다. 한 번쯤은 경험했을 물건이기에 발걸음이 가볍다.

그러다가 검정고무신을 만나는 순간 과거로

여행이 시작된다. 살다보면 가끔 학창시절이 그리울 때. 한 번쯤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때. 검정고무신, 콩나물고깃살, 몽당연필, 난로 위에 올려놓은 양은 도시락, 가난하기에 부족했고, 부족하기에 불편했던 그 시절속으로 빠져든다.

옛 초등학교 교실과 그 시절 추억의 물건들이 전시된 곳. 이곳에서 발걸음을 멈춘 아빠,엄마의 표정이 향수에 젖어든다. 아이들은 검정고무신이, 나무로 짜여진 책상과 결상이 신기하기만 하다.

이 코너에서 가족들은 공통된 화제를 찾는다. 아빠,엄마가 기억을 되살려 학창시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썼던 교과서와 공책, 문구류 학습도구, 교복 등도 놓여있다. 먼지나는 신작로에서 동무들과

뛰어놀던 시절,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썰매타기와 눈싸움으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지냈던 시간들. 가난해도 정겨웠고 사람냄새 물씬 풍겨나던 그때가 전시공간에서 아련히 그려진다. 향수에 젖어들던 시간을 뒤로하고 시대별로 놓여진 전시품을 둘러보면 타임머신을 타는 것 같다.

전시실에서 벗어나면 직접 장작으로 군불을 뿜 수 있는 민박촌과 10마리를 직접 구워먹을 수 있는 봉어빵 굽기(4천원), 띠기, 비누방울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연탄불 주위에 국자로 설탕을 녹여 만든 띠기는 아이들에게는 최고 인기다. 다가오는 설날에는 인절미 찜기, 투호놀이, 널뛰기, 윷놀이, 군고구마 구워먹기 등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코너가 늘어난다.

송학민속체험박물관 인근에는 담양리조트, 금성산성이 지적이어서 초가집에서 군불을 직접 때며 1박2일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기에 손색이 없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며 관람료는 성인 2천500원, 청소년과 군경은 1천500원이다. (문의) 061-381-7179.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문화관광이! 지원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듭시다!

안전교육	안전교육 실시	안전교육 실시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	안전관리 실시	안전관리 실시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	안전관리 실시	안전관리 실시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	안전관리 실시	안전관리 실시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	안전관리 실시	안전관리 실시